

간호사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정도와 모유수유간호활동 수행정도

성 미 혜*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모유의 성분과 우유 성분의 차이는 오래 전부터 알려져 왔고 과거에 비해 영아의 영양적, 생리적 요구에 대한 지식과 기술적 측면의 발달로 좀 더 나은 인공영양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모유는 영아의 성장 및 건강을 위해 가장 적합한 영양원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출산후 5일간 분비되는 초유는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등을 더 많이 함유할 뿐만 아니라 항체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게 해준다(김수연, 1993). 또한, 모유수유는 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이환율과 사망률을 감소시키고(Dewey, Heining, Nommsen, Peerson & Lønerdal, 1992), 일정기간동안 모유수유를 하게 되면 모아 사이의 사회 심리적 상호작용이 긍정적으로 촉진되어 아기에게는 모애착이 형성되고, 엄마에게는 정신, 정서적 만족감을 얻으며 유방암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노만수, 1994; 한경자, 1994).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부터 시민의 모임 주체로 소비자 단체에서 모유수유 저해요인과 대책에 관한 토론회가 개최되고, 1991년에는 분유광고에 아기 모델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며 '한국 모유먹이기 운동 위원

회'를 발족하였다. 1993년 4월에는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을 지정하여 성공적인 엄마젖 먹이기 10단계의 행동 강령을 수록한 포스터를 제작, 배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어머니들의 모유에 대한 인식에 많은 변화를 일으켜 모유수유에 대한 어머니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90%이상의 어머니들은 분만 전에는 모유수유를 희망하면서도 실제의 모유수유율은 매우 낮으며 특히 교육수준이나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의 여성들이 모유수유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미영, 1992). 모유수유를 저하에는 모유수유에 대한 교육 및 홍보부족, 모유수유에 대한 신념 부족, 취업증가등 현실적 장애등의 여러 용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김효진, 1992; 정혜경, 이미라, 1993), 특히 모유수유의 성공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모유수유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모유수유의 의지가 있어도 수유초기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오현이, 박난준, 임은숙, 1994).

Graffy(1992)와 Calvo(1992)에 의하면 임신중이나 분만후, 입원해 있는 동안 의료인들로부터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기술, 원조 및 지지를 구했을 때 오히려 42%정도에서 인공수유를 권유받았다고 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어머니가 병원에서 분만함에도 불구하고 입원해 있는 동안 의료인으로부터 모유를 먹이는 방법이나 기술

* 인제대학교 간호학과

에 대한 설명은 거의 받지 않았으며 퇴원시에도 모유수유를 권장하는 말조차 듣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이자형, 변수자, 한경자, 1994; 정문숙 등, 1993), 간호사에 의한 모유수유에 대한 교육 및 간호활동의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신념과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되고, 신념과 태도는 모유수유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Kearney, 1988),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부족은 모유수유를 하려는 동기와 직접적인 실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최영희, 김혜숙, 박현경, 이영희, 1996).

최순옥(1987)의 연구에서 모유수유에 대한 교육이 모유수유 실천과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인들의 모유수유에 대한 관심있는 태도는 산모의 모유수유의 권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행연두들(김화숙, 1991; 김혜숙, 1994; 송지호 등, 1993; 최순옥, 1987))을 보면 주로 산모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과 기술은 저절로 터득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과 충분한 준비를 통해서만 습득되어지므로 모유수유에 대한 교육활동의 주체자인 간호사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과 간호실무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유수유 간호활동에 대한 측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산과 외래, 신생아실, 산과 병실 및 분만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과 간호활동의 수행정도를 파악하고 지식정도와 간호활동수행정도와와의 관계를 확인하여 모유수유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모유수유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간호사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과 간호활동 수행정도를 파악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사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정도를 파악한다.
- 2) 간호사의 모유수유에 대한 간호활동 수행정도를 파악한다.
- 3) 간호사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정도와 간호활동수행정도와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및 수용경험에 따른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정도와 간호활동수행정도와와의 차이를 파악한다.

3. 용어의 정의

- 1)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정도 : 정문숙 등(1994)이 개발한 20문항의 모유수유 지식측정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 2) 모유수유에 대한 간호활동 수행정도 : 정문숙 등(1994)이 개발한 30문항의 모유수유 권장과 관련된 간호활동 측정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II. 문헌고찰

인간의 젖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중의 하나는 모유를 수유하는 동안에 일어나는 변화이다. 모유는 묽고 흐리게 나오기 시작해서 다 먹어갈 즈음에는 점점 희고 진해진다. 이런 생물학적 구조는 아기의 식욕을 조절하나, 분유는 일정하고 변화없는 맛과 농도로 인해 아기들을 과식과 비만중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김봉영, 1984).

모유는 첫 6개월 동안에 영아의 건강을 위해 필요로 하는 모든 영양소를 제공하며, 특히 유장 단백질(Whey protein)의 함유량이 모유에는 총 단백질량의 60%이상 차지하고 있고, 우유에는 20%이내이기 때문에, 모유의 소화 흡수율이 높다. 특별히 초유에는 풍부한 면역체를 포함하고 있어서 위장관의 세균감염에 대해서 저항력을 가지며, 알리지, 비만증, 대사성 및 다른 질병에 대한 보호적 역할을 한다(최연순 등, 1994).

모유수유는 심리적인 면으로 보아도 엄마와 아기의 상호관계를 돈독하게 해주는 매개체가 된다. 하루에 몇 번씩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의 심장 고동소리를 재확인하고 달콤한 젖을 빨아먹을 기회를 갖는 일은 아기에게는 이 세상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경험으로, 이는 장차 형성될 아기의 성격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김혜숙, 1993; 주정일, 1993).

많은 모유수유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모유수유 실천율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저조하다.

이승주 등(1994)은 현재 우리나라의 모유수유 실천율은 매우 낮으며 모유수유를 실천하고 있다고 대부분의 경우 모유수유 기간이 2-4주사이에 중단되는 등 모유수유 지속기간이 짧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와같이 우리나라의 모유수유율이 저하된 원인은 TV광고에서 분유의 과대선전,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모자동실이 아닌 모아격리제도, 의료인들의 무관심, 여성의 취업 급증에

다른 모유수유의 어려움 등이며(김승조, 1990; 김혜숙, 1993). 때때로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부족이 어머니들의 모유수유에 도전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든다(김혜숙, 1993).

우리나라의 출산 시스템의 몇 가지 문제점은 건강 전문가들과 건강전문 기관이 산모에게 모두 적절한 시설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과 현존하는 기관의 경우 산후 즉시 또는 그 후에 모유수유를 하기에 불편하고, 산전, 산후시기에 모유수유에 대한 관심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김혜숙, 1995).

박옥희, 권인수(1991)의 연구에 의하면 임신중 모유수유에 관한 교육을 제공한 사람은 스스로 대중매체를 통해서 얻은 경우가 대부분이고(87.5%), 친모, 시모, 기타 친지로부터 받은 경우가 20.5%로 임신부들을 위한 의료인들의 모유수유 증진 행위는 아주 미약한 실정이다.

Saunders와 Carroll(1988)은 개인 산부인과 병원에서 분만한 산모 155명을 대상으로 분만후 1-3일에 모유수유하는 것을 관찰하면서 모유수유 기술을 토의하고 지지를 제공하고 분만후 4-5일에는 전화 또는 편지로 모유수유에 관한 질문에 응답하고 지지를 제공하며 산후 2주에는 슬라이드와 비디오를 통하여 집단교육을 실시한 후 모유수유에 관하여 토의하는 시간을 갖는 지지적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 결과 분만 4주후 모유수유빈도가 실험군은 95%, 대조군은 71%라고 보고하면서 산후 초기에 반복적임 교육 및 지지의 제공은 모유수유의 빈도를 증가시키는데 효과적이라 하였다. 또한 최순옥(1987)은 174명의 산모를 대상으로 분만후 3일 이내에 모유수유의 장점과 모유수유 방법, 모유부족을 막는 방법 및 유방 마사지 방법을 교육한 후 산후 1개월과 5개월의 모유수유 빈도를 조사한 결과 분만 1개월과 5개월 모두 실험군의 모유수유 빈도가 높았다고 하였다.

박옥희(1992)는 산전 유방관리 교육을 받은 임부에서 모유수유를 계획한 경우 82%에서 모유수유를 실천한 반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는 29.8%의 실천율을 나타냈다고 하여 산전교육이 모유수유 실천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유연자(1997)는 모유수유 증진을 위한 간호활동의 저해요인 인식정도에 관한 연구에서 간호사의 모유수유 권장과 관련한 교육이나 상담경험은 간단히 말로만 모유수유를 권장한 경우가 75.4%였으며, 간호사가 모유수유 저해요인에 대해 인식하고 있어도 간호활동 수행정도는 높지 않았다. 한편, 최순옥(1987)은 모유수유 교육이 그

실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모유수유에 대한 교육이 모유수유 실천과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며, 하영수(1987)는 모유수유에 대한 권유와 도움은 임신부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주며, 이때 간호사가 헌신적인 태도와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정보를 제공한다면 성공을 거둘 수 있고, 특히 모유수유에 대해 잘못 알고 있을 때는 큰 도움이 된다고 하여, 간호사들의 모유수유에 대한 관심있는 태도가 산모의 모유수유의 권장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김영혜와 김미정(1997)은 간호사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정도가 모유수유 간호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는데 간호사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정도 및 간호활동 수행정도는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지식정도가 간호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하여 이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모유수유율의 감소 및 모유수유 지속의 실패를 증가는 의료전문인들의 책임과 관련되며, 산과관리에 대한 교육부족, 간호사의 모유수유에 대한 관심부족, 분만후 모자 관리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조미영, 1992). 또한 산모의 간호에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분만실 또는 산과 근무 간호사의 수유간호중재는 도움이 되지만(하영수, 1987), 모유수유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산부인과 외래, 분만실, 분만후 병실 및 신생아실 간호사들의 모유수유에 대한 의지가 약하고 실제로 모유수유를 위한 간호활동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김영혜, 김미정, 1997).

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사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정도와 모유수유 관련 간호활동 수행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1999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서울에 소재한 2개 대학병원과 P시에 소재한 1개 대학병원의 간호사중 실질적으로 모유수유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인 산과외래, 신생아실, 산과병동, 분만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10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정문숙 등(1994)이 개발한 모유수유 지식 및 간호활동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연구도구의 문항은 60문항으로서 대상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10문항, 간호사의 모유수유에 관한 지식 20문항 및 모유수유 권장과 관련된 간호활동 3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간호사의 모유수유에 관한 지식정도는 '예' '아니오'의 2항목으로 응답하게 하여 문항별로 정답율(%)을 측정하였으며, '예' '아니오'로 구성된 지식측정도구의 내적 일관성은 Kuder - Richardson공식에 의한 KR -20계수를 이용하였으며 .726이었다.

간호사의 모유수유 권장과 관련된 간호활동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항상한다' '자주한다' '가끔한다' '거의 안한다' '전혀 안한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모유수유에 대한 간호활동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모유수유 간호활동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는 Chronbach's $\alpha = .948$ 이었다..

4. 자료분석방법

자료의 통계적 처리 및 분석은 SPSS PC+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및 수유에 관한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정도는 각 문항별 정답율을 보았다. 모유수유 관련 간호활동 수행정도는 항목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모유수유 지식정도와 모유수유 관련 간호활동 수행정도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보았으며, Tukey test로 사후검증을 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표 1), 연령은 평균 28.4세로 25-29세가 58.1%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수준은 간호전문대학이 94.3%로 대부분이었다. 근무병동은 신생아실 38.1%, 산과병동 30.5%, 분만실 29.5% 순이었으며, 근무경력은 평균 4.7년으로 3년-6년 미만이 31.4%로 가장 많았고, 타병동 근무경험은 없는 경우가 56.2%로 가장 많았으며 모유수유와 관련이 없는 기타 병동이 34.3%로 나타났다. 직급은 일반 간호사가

〈표 1〉 간호사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정도와 모유수유 간호활동정도

특 성	구 분	실 수(%)	
연령	21- 24세	15(14.3)	평균 28.4세
	25-29세	61(58.1)	
	30세 이상	29(27.6)	
교육수준	간호전문대학	99(94.3)	
	간호학과 및 간호대학	6(5.7)	
	산과병동 및 외래	34(32.4)	
근무병동	신생아실	41(38.1)	
	분만실	30(29.5)	
	3년 미만	39(37.2)	평균4.7년
3-6년미만	33(31.4)		
6-9년미만	13(12.4)		
근무경력	9년이상	20(19.0)	
	없음	59(56.2)	
	산과계열	10(9.6)	
타병동 근무경험	기타병동	36(34.3)	
	일반간호사	78(74.3)	
직급	주임간호사이상	27(25.7)	
	기혼	34(32.4)	
결혼상태	미혼	71(67.6)	
	없음	9(26.5)	
자녀수	1명	15(44.1)	
	2명	10(29.4)	
	유	20(58.8)	
모유수유경험	무	14(41.2)	
	유	26(24.8)	
모유수유 보수교육 경험	무	79(75.2)	

74.3%로 가장 많았으며 결혼상태는 미혼인 경우가 67.6%로 기혼 32.4%보다 많았다. 자녀수는 1명의 경우가 44.1%로 가장 많았으며 모유수유 경험은 있는 경우가 58.8%로 없는 경우보다 많았고, 모유수유 보수교육 경험은 없는 경우가 75.2%로 있는 경우 24.8%보다 훨씬 많았다.

2. 간호사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정도

간호사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정도를 항목별로 보면 〈표 2〉, 총 20점 만점에 평균 12.76점으로 나타났으며

항목별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인 항목은 '초유는 아기의 뇌발달을 자극시킨다'(83.8%)와 '모유수유는 산후의 체중조절에 도움을 준다'(83.8%)이며, 다음은 '초유에는 면역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81.0%), '인공 수유아는 모유 수유아보다 언어능력이 높다'(81.0%), '유방이 작으면 젖의 분비량도 충분치 못하다'(79.0%)순이었다.

가장 낮은 응답율을 보인 항목은 '우유는 모유보다 비만 예방에 도움이 된다'(24.8%), 다음은 '부적절한 수유 자세는 유두균열을 발생시킬 수 있다'(29.5%), '모유속에는 백혈구를 포함하고 있어서 아기의 충치를 예방한다'(32.4%), '초유는 분만후 약 일주일 동안 분비된다'(33.3%)순이었다.

3. 간호사의 모유수유에 대한 간호활동 수행정도

간호사의 모유수유에 대한 간호활동 수행정도를 보면 <표 3>, 총 120점 만점에 평균 109.80점이었으며 4점 평점 척도에서 평균 3.99±8.17점으로 나타났다.

모유수유 간호활동의 항목별 수행정도에서 가장 높은 수행정도를 보인 항목은 '임산부에게 모유수유 여부를 묻는다'(4.24±0.93), '병원에서 산모에게 수유할 기회를 제공한다'(4.22±0.91), '초유의 필요성을 설명한다'(3.96±0.97), '모유는 아기에게 가장 완벽한 식품임을 설명한다'(3.91±1.07)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수행정도를 보인 항목은 '모유 분비의 생리적 기전을 설명한다'(3.12±1.05), '분만후 24시간 이내에 브레지어

<표 2>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정도

문항	순위	정답자수 (%)	오답자수 (%)
*1. 초유는 분만후 약 일주일동안 분비된다.	17	35(33.3)	70(66.7)
*2. 초유는 성유보다 수용성 비타민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16	41(39.0)	64(61.0)
3. 초유는 아기의 뇌발달을 자극시킨다.	1	88(83.8)	17(16.2)
4. 초유에는 면역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3	85(81.0)	20(19.0)
5. 모유의 단백질 함량은 아기의 성장에 약간 부족하다.	15	47(44.8)	58(55.2)
*6. 우유먹고 자란 아기는 알레르기등의 이환률이 낮다.	10	72(68.6)	33(31.4)
7. 우유에는 모유보다 콜레스테롤이 많다.	9	73(69.5)	32(30.5)
8. 우유는 모유보다 비만 예방에 도움이 된다.	20	26(24.8)	79(75.2)
9. 수유기간이 길수록 유방암 발생률이 낮다.	7	77(73.3)	28(26.7)
10. 모유수유는 산후의 체중조절에 도움을 준다.	1	88(83.8)	17(16.2)
11. 출생후 한 시간 이내에 젖을 물리는 것이 이상적이다.	13	52(49.5)	53(50.5)
*12. 부적절한 수유자세는 유두균열을 발생시킬 수 있다.	19	31(29.5)	74(70.5)
*13. 유즙의 분비는 대개 분만후 5-6일부터 시작된다.	11	67(63.8)	38(36.2)
14. 젖은 계속적으로 자주 빨리면 수년 동안 분비된다.	12	56(53.3)	49(46.7)
*15. 유방이 작으면 젖의 분비량도 충분치 못하다.	5	83(79.0)	22(21.0)
*16. 아기에게 황달이 나타나면 반드시 모유수유를 금해야 한다.	8	75(71.4)	30(28.6)
17. 모유를 먹는 아기는 우유를 먹는 아기보다 변이 묽다.	6	82(78.1)	23(21.9)
*18. 모유수유는 어머니의 골다공증을 예방한다.	13	52(49.5)	53(50.5)
*19. 인공 수유아는 모유 수유아보다 언어능력이 높다.	3	85(81.0)	20(19.0)
*20. 모유 속에는 백혈구를 포함하고 있어서 아기의 충치를 예방한다.	18	34(32.4)	71(67.6)

* 는 '아니오'의 문항임. 평균점수 12.76점. 정답율 59.7%임.

〈표 3〉 모유수유에 대한 간호활동의 수행정도

문 항	순 위	M ± SD
1. 임산부에게 모유수유를 묻는다.	1	4.24±0.93
2. 모유수유를 안하는 이유를 묻는다.	12	3.72±1.21
3. 산모의 건강상태가 모유수유에 적합한지를 사정한다.	12	3.72±1.09
4. 직장여성도 모유수유가 가능함을 설명한다.	16	3.69±1.89
5. 모유는 아기에게 가장 완벽한 식품임을 설명한다.	4	3.91±1.07
6. 모유수유는 산후 자궁복구에 도움이 됨을 설명한다.	9	3.78±1.08
7. 모유수유는 아기의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이 됨을 설명한다.	6	3.81±1.02
8. 모유수유는 모애착을 증진시킴을 설명한다.	10	3.74±1.03
9. 초유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3	3.96±0.97
10. 모유분비의 생리적 기전을 설명한다.	30	3.12±1.05
11. 모유수유에 관한 교육책자를 산모에게 제공한다.	24	3.44±1.14
12. 수유부가 약물복용시 주의할 점을 알린다.	23	3.49±0.93
13. 충분한 수분섭취가 유즙분비에 중요함을 설명한다.	22	3.52±1.07
14. 수유부에게 영양섭취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17	3.63±1.13
15. 아기 입원시 초유를 받아 오도록 하여 아기에게 수유해 준다.	17	3.63±0.97
16. 병원에서 산모에게 수유할 기회를 제공한다.	2	4.22±0.91
17. 유두가 함몰되었는지를 사정해 준다.	11	3.73±1.11
18. 유두가 함몰되었을 때 그 관리법을 교육한다.	14	3.71±1.03
19. 유방을 깨끗하고 건조하게 관리하도록 교육한다.	5	3.85±0.92
20. 분만후 24시간 이내에 브레지어로 유방을 잘 지지하도록 교육 한다.	28	3.31±1.08
21. 유방울혈의 증세에 대해서 설명한다.	19	3.60±1.12
22. 유방울혈이 있을 때 더운 물로 찜질하도록 교육한다.	6	3.81±1.10
23. 산후 유방 마사지 방법을 교육한다.	6	3.81±1.18
24. 수유시 아기 아는 법을 교육한다.	27	3.38±1.17
25. 수유시 산모의 편안한 자세 유지법을 교육한다.	26	3.40±1.18
26. 수유시 젖을 유륜까지 깊이 물리도록 교육한다.	19	3.60±1.17
27. 수유시 아기의 코가 눌리지 않도록 교육한다.	21	3.56±1.22
28. 적당한 1회 수유시간을 알려 준다.	15	3.70±1.15
29. 유두를 빨 때 아기의 양 볼을 눌러서 빼는 법을 교육한다.	28	3.31±1.29
30. 수유후 남은 젖은 짜버리도록 교육한다.	25	3.43±1.78

로 유방을 잘 지지하도록 교육한다'(3.31±1.08), '유두를 빨 때 아기의 양 볼을 눌러서 빼는 법을 교육한다'(3.31±1.29), '수유시 아기 아는법을 교육한다'(3.38±1.17)순으로 나타났다.

4.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유수유 지식정도 와 간호활동 정도의 차이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따른 모유수유 지식정도와 간호

활동 정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표 4). 간호사의 연령에 따른 지식정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F=3.267, P<0.05), 사후 검증으로 Tukey test를 통해 연령이 높을수록 지식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병동에 따른 지식정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F=7.298, P<0.001), 사후검증으로 Tukey test를 통해 분만실에 근무하는 경우 산과병동 및 외래에 근무하는 경우보다 지식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

〈표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식정도와 간호활동 수행정도의 차이

특 성	구 분	지식정도		간호활동	
		M±SD	t or F	M±SD	t or F
연령	21-24세	10.53±0.68	3.267*	105.47± 4.35	3.134*
	25-29세	11.15±0.06		107.87± 1.85	
	30세이상	11.88±1.14		120.19±11.81	
근무병동	산과병동 및외래	10.81±0.11	7.298**	116.50±4.78	4.995*
	신생아실	11.49±0.78		104.22±6.68	
	분만실	15.00±1.01		103.50±4.57	
근무경력	3년미만	10.69±0.14	4.632*	110.10±0.78	2.207
	3년-6년미만	11.39±0.17		106.70±3.12	
	6년-9년미만	10.85±0.57		102.62±7.12	
	9년이상	12.35±1.14		119.10±9.28	
타병동근무경험	없음	51.92±2.74	8.411**	105.31± 4.51	8.606**
	산과계열	64.40±9.47		132.50±22.74	
	기타병동	51.97±1.14		110.92± 1.10	
직급	일반간호사	11.05±1.63	-1.97*	106.65±3.17	-2.76*
	주임간호사이상	11.81±2.02		118.96±7.71	
결혼상태	유	11.52±1.81	1.29	117.58±17.12	2.75*
	무	11.05±1.79		106.09±21.22	
자녀수	없음	13.44±0.78	15.661	108.08±1.74	1.264
	1명	10.33±0.21		114.27±4.55	
	2명	11.60±0.17		117.10±4.17	
모유수유경험	유	11.95±1.39	2.12*	114.50±18.36	1.13
	무	11.03±1.80		108.71±21.07	
모유수유 보수교육경험	유	11.84±1.82	2.15*	120.00±19.03	3.01*
	무	11.00±1.71		106.46±20.13	

* P<0.05 **P<0.001

무경력에 따른 지식정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F=4.632, P<0.05), Tukey test로 사후검정한 결과 9년 이상인 경우 1년 미만인 경우보다 지식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병동근무경험에 따른 지식정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F=8.411, P<0.001), Tukey test로 사후검정한 결과 산과계열 경험이 있는 경우 타 근무 병동경험이 없거나 다른 병동 경험이 있는 경우보다 지식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에 따른 지식정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t=-1.97, P<0.05), Tukey test로 사후검정한 결과 주임간호사 이상이 일반 간호사보다 지식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상태(t=1.29, P>0.05), 자녀수 (F=15.661, P>0.05)에 따른 지식정도 차이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모유수유 경험에 따른 지식정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t=2.12, P<0.05), Tukey test로

사후검정한 결과 모유수유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지식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유수유 보수교육 경험에 따른 지식정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t=2.15, P<0.05), Tukey test로 사후검정한 결과 모유수유 보수교육 경험이 있는 군이 없는 군보다 지식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간호사의 연령에 따른 간호활동 수행정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F=3.134, P<0.05), Tukey test로 검증한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간호활동 수행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병동(F=4.995, P<0.05), 타병동 근무경력(F=8.606, P<0.001), 직급(t=-2.76, P<0.05), 결혼상태(t=2.75, P<0.05), 모유수유 보수교육 경험(t=3.01, P<0.05)등에서 간호활동 수행정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를 Tukey test로 사후검정한 결과 산과병동 및 외래에 근무하는 경우 분만실에

근무하는 경우보다 간호활동 수행정도가 높았으며, 산과 계열 근무경험이 있는 경우 타병동 근무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보다 간호활동 수행정도가 높았고, 결혼을 한 경우 미혼보다 간호활동 수행정도가 높았으며, 모유수유 보수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간호활동 수행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경력(F=2.207, P>0.05), 자녀수(F=1.264, P>0.05), 모유수유 경험(t=1.13, P>0.05)등에서 간호활동 수행정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5. 간호사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정도와 간호활동 수행정도간의 상관관계

간호사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정도와 간호활동 수행정도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r=.381, P<0.05)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표 5).

〈표 5〉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정도와 간호활동 수행정도간의 상관관계 (N=105)

간호활동 수행정도	
지식정도	.381 *

* P<0.05

V. 논 의

본 연구는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산모의 모유수유 증진을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에 앞서 간호사들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정도와 모유수유 관련 간호활동 수행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사술적 연구였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중 모유수유에 대한 보수교육 경험은 없는 경우가 75.2%로 나타나 김영혜와 김미정(1997)의 60.3%보다 높고 정문숙등(1994)의 87.7%보다 낮으나 전반적으로 간호사들의 모유수유에 대한 보수교육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모유수유가 인공수유보다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모유수유에 대한 간호사들의 관심이 저조함을 잘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모유수유율 저하원인에 대한 김승조(1999)와 김혜숙(1995)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라 할 수 있다.

간호사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정도는 총점 20점에

12.76점으로 정문숙 등(1994)의 12.80점, 김영혜와 김미정(1997)의 13.54점 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항목별 지식정도에서 '초유는 아기의 뇌발달을 자극시킨다', '초유에는 면역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인공수유아는 모유수유아보다 언어능력이 높다', '유방이 작으면 젖의 분비량도 충분치 못하다' 등의 항목이 정문숙 등(1994), 김영혜와 김미정(199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만 '모유수유는 산후의 체중조절에 도움을 준다', '모유를 먹는 아기는 우유를 먹는 아기보다 변이 묽다' 등은 연구결과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모유수유율 증진을 위해서는 간호사의 일치된 지식정도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려된다.

유연자(1997)의 모유수유 증진을 위한 간호활동과 저해요인 인식정도에 관한 연구에서 간호사의 모유수유를 권장하는 교육은 대부분이 간단히 말로만 모유수유를 권장하는 것으로 나타나 간호사의 지식부족과 연결지를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모유수유에 대한 재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며 아울러 모유수유 전문간호사 제도의 도입 및 확산이 시급한 것으로 본다.

한편, 간호사의 모유수유 관련 간호활동을 보면 총 120점 만점에 평균 109.80점으로 나타나 정문숙등(1994)의 120점 만점에 65.50점, 김영혜와 김미정(1997)의 145점 만점에 92.38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대상병원의 간호사들이 다른 병원의 간호사들보다 모유수유 관련 간호활동을 많이 수행함을 알 수 있다. 유연자(1997)는 준종합병원 간호사가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간호사에 비해 모유수유 활동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지만, 송지호 등(1993)은 영유아 어머니의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 및 실천에 관한 연구에서 분만장소가 종합병원 일수록 모유수유 실천을 잘한다고 하여 계속적인 연구를 통한 이에 대한 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려되며, 병원의 규모보다는 간호사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태도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유수유 지식정도의 차이는, 간호사의 연령, 근무병동, 근무경력, 타병동근무경험, 직급, 모유수유 경험, 모유수유 보수교육 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정문숙등(1994)의 연령, 직급, 자녀수에 따라 차이를 보인 것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며, 일부 변수에서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 이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를 통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특성들을 간호사 대상의 모유수유 보수교육 및 모유수유 증진을 위해 간호사 배치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으로 본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유수유 관련 간호활동의 수행정도는 연령, 근무병동, 타병동 근무경험, 직급, 결혼상태, 모유수유 보수교육 경험 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미국의 경우 수유 전문간호사가 산전부터 분만 후까지 모유수유를 위한 간호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은 물론 NGO(Non Governmental Organization)까지 모유운동을 펼친 결과 80%이상의 모유수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병원이나 지역사회의 모유수유를 위한 지지체계가 조직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며 의료인의 소극적인 태도 또한 한몫을 하고 있으므로(김분한, 1986), 간호사 배치 시 산과병동 및 신생아실 간호사는 연령, 결혼상태등을 고려하며 지속적인 보수교육을 통한 지식습득과 높은 간호활동 수행을 통해 수유전문 간호사 제도가 도입 및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간호사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정도와 간호활동 수행정도간의 상관관계에서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r=.381, P<0.05$), 이는 정문숙 등(1994)의 연구결과($r=.216, P>0.05$), 김영혜와 김미정(1997)의 연구결과($t=-.01, P>0.05$)와 상반되는 결과로서, 실무현장에서 모유수유와 관련한 간호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간호사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도 지식정도는 비교적 낮은데 반해 모유수유 관련 간호활동 수행정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규명은 필요할 것으로 본다.

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1999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 까지 서울에 소재한 2개 대학 병원과 P시에 소재한 1개 대학병원의 간호사중 산과외래, 신생아실, 산과병동, 분만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105명을 대상으로,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정도와 간호활동 수행정도를 파악하고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정도와 간호활동 수행정도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해 본 연구로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연령 평균은 28.4세로 25-29세가 58.1%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수준은 간호전문대학이 94.3%로 대부분이었다. 근무병동은 신생아실 38.1%, 산과

병동 30.5%, 분만실 29.5%순이었으며, 근무경력은 평균 4.7년으로 3년 미만이 37.2%로 가장 많았고, 타병동 근무경험은 없는 경우가 56.2%로 가장 많았으며 모유수유와 관련이 없는 기타 병동이 34.3%로 나타났다. 직급은 일반 간호사가 74.3%로 가장 많았으며 결혼상태는 미혼인 경우가 67.6%로 기혼 32.4%보다 많았다. 자녀수는 1명인 경우가 44.1%로 가장 많았으며 모유수유 경험은 있는 경우가 58.8%로 대부분이었고 모유수유 보수교육 경험은 없는 경우가 75.2%로 있는 경우 24.8%보다 훨씬 많았다.

- 2) 간호사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정도는 총 20점 만점에 평균 12.76점으로 나타났으며, 간호활동 수행정도는 총 120점 만점에 평균 109.80점으로 나타났다.
- 3)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식정도는 연령($F=3.267, P<0.05$), 근무병동($F=7.298, P<0.001$), 근무경력($F=4.632, P<0.05$), 타병동 근무경험($F=8.411, P<0.001$), 직급($t=-1.97, P<0.05$), 모유수유 경험($t=2.12, P<0.05$), 모유수유 보수교육 경험($t=2.15, P<0.05$)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 4)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활동 수행정도는 연령($F=3.134, P<0.05$), 근무병동($F=4.995, P<0.05$), 타병동 근무경험($F=8.606, P<0.001$), 직급($t=-2.76, P<0.05$), 결혼상태($t=2.75, P<0.05$), 모유수유 보수교육 경험($t=3.01, P<0.05$)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 5) 간호사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정도와 간호활동 수행정도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r=.381, P<0.05$)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2. 제언

- 1) 본 연구에서 임산부 및 산모를 교육하는 위치에 있는 간호사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모유수유 증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간호사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을 높이기 위한 보수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 2) 간호사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뿐 아니라 모유수유

와 직접 관련된 산모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정도도 모유수유 실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산모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정도 및 산모들이 인식하는 간호사의 모유수유관련 간호활동 정도를 파악할 것을 제언한다.

참 고 문 헌

김분한(1986). 영유아의 수유실태에 관한 연구. 최신의학, 29(3), 158-167.

김봉영(1984). 엄마 젖이 좋아요.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김수연(1993). 모유영양 실시기간에 영향주는 생리적 사회 행동적 요인 분석.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승조(1990). 모유수유 장애요인 및 대책. 모유권장 대책 토론회.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김영혜, 김미정(1997). 간호사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정도가 모유수유 간호활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간호학회지, 3(1), 52-61.

김희숙(1992). 모유수유를 시도했던 초산부의 모유수유 지속요인 분석.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혜숙(1993). 모유의 신비. 서울 : 에드텍.

김혜숙(1995). 의료요원의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신념 및 지식 정도의 비교분석.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2), 243-253.

김효진(1992). 영아의 수유 및 보충식에 대한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노만수(1994). 건강한 유방 아름다운 당신. 서울: 동아일보 출판사.

박옥희, 권인수(1991). 산후 경과별 모유수유 실태. 모자간호학회지, 1, 45-58.

박옥희(1992). 임신중 유방간호가 모유수유 실천에 미치는 영향. 대한간호학회지, 22(1), 29-41.

송지호, 김순애, 문영수, 박영주, 백승남, 변수자, 이남희, 조결자, 조희숙, 최미혜, 최양자 (1993). 영유아 어머니의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 및 실천에 관한 연구. 모자간호학회지, 3(2), 153-165.

이승주, 박재옥, 손창성, 이해란, 신재훈, 정해일 (1994). 수유실태조사. 소아과, 37(12), 1657-1668.

이자형, 변수자, 한경자 (1994). 모유수유 관련 요인 및

어머니의 교육요구. 간호과학, 6.

오현이, 박난준, 임은숙(1994). 성공적인 모유수유를 저해하는 요인에 관한 분석적 연구. 모자간호학회지, 4(1), 68-79.

유연자(1997). 모유수유 증진을 위한 간호활동과 저해 요인 인식정도에 관한 연구. 최신의학, 40(12), 62-75.

정문숙, 김미애, 고효정, 김신정, 박명희, 신영희, 송인숙, 이수연, 이인혜, 정귀애, 정승은 (1994). 간호사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과 간호활동 정도. 모자간호학회지, 3(2), 187-196.

정혜경, 이미라 (1993). 임부의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분석. 모자간호학회지, 3(2), 126-141.

조미영 (1992). 모유수유를 저해하는 요인과 모유수유 권장을 위한 방안. 대한간호, 31(1), 28-34.

주정일 (1993). 태교·출산의 지혜. 서울 : 샘터.

최순옥 (1987). 모유수유 교육이 그 실천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최연순, 조희숙, 장춘자, 이남희, 장순복, 최양자, 박영숙 (1994). 모성간호학(I). 서울 : 수문사.

최영희, 김혜숙, 박현경, 이영희 (1996). 모유수유부의 모유수유 실천에 따른 관련 요인 분석. 대한간호, 35(5).

하영수 (1987). 모유수유 교육이 그 실천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한경자 (1994). 모유수유와 간호사의 역할. 대한간협보 수교육교재, 3-13.

Dewey, K. G., Heining, M. J., Nommsen, L. A., Peerson, J. M. & Lonnerdal, B. (1992). Growth of Breastfed and Formula-fed Infants from 0 to 18months : The Darling study. Pediatrics, 89(6), 1035-1041.

Calvo, B., et. al. (1992). Maternal Attitude to breast-feeding and difficulties in the immediate puerperium. Anten. Primira, 10(3), 650-653.

Graffy, J. P. et. al. (1992). Mother's Attitudes and Experience of Breast-Feeding : a primary care study. Br. J. Gen. Pract., 42(355), 61-64.

Kearney, M. M. (1988). Identifying psychosocial obstacles to breast-feeding success. JOGNN,

14(2), 114-118.

Saunders, S. E. & Carrol, J. (1988).
Postpartum Breast-Feeding support :
Impact on Duration. Journal of Americal
Dietetic Association, 88(2), 213-215.

- Abstract -

Key concept : The knowledge of breast-feeding,
Nursing activities

Nurse's Knowledge to Breast- Feeding and Nursing Activities related to Breast-Feeding

*Sung, Mi Hae**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hospital nurses' knowledge of breast-feeding and their ability to provide care to breast-feeding mothers and their children.

From Nov. 1 to 30, 1999, 105 nurses of the obstetric ward, delivery room, OPDs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and nurseries of three general hospitals from Seoul and Pusan were evaluat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

1. Mean score of nurse's knowledge to breast-feeding was 12.76.
Mean score of performance of nursing activities was 109.80.
2. General characteristics and feeding characteristics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nurse's knowledge to breast-feeding and performance of nursing activities related to breast-feeding. Nurse's knowledge about breast-feeding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age, working ward, clinical experience, rank of position, experience of breast-feeding and experience education on breast-feeding.
Performance of nursing activities for breast-feeding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age, working ward, experience in other ward, marital status, and education on breast-feeding.
3.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nurse's knowledge to breast-feeding and performance of nursing activities related to breast-feeding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r = .381$, $P < 0.05$).

*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In je University